

## 사회



## 한 폭의 수채화

봄비가 내린 25일,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으로 오르는 경사로에 분홍빛으로 활짝 핀 '서부해당화'와 학생들이 들고 있는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조화를 이루 한 폭의 산뜻한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해야겠는데…

## 자치구 막대한 예산 '속앓이'

## 주민들 "배출량 확인 어렵다" 계측 투명성 의혹 제기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잇따라 배출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맞춰 수수료를 납부토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자치구가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차량에 계측기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모든 차량에 설치할 경우 10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매일 대형음식점과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구조례에 따라 대형음식점의 경우 kg당 94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5원을 책정해 월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

거가 오전 이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다 무게를 재는 장비가 대부분 차량 내에 있어 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과다 책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양은 일정한데 월별로 나오는 수수료는 들죽날죽하다"며 "계측량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정측은 난감하다. 현재 차량 조수석에 있는 계측기를 외부로 빼내면 비용이 발생하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잇따라 배출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맞춰 수수료를 납부토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자치구가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차량에 계측기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모든 차량에 설치할 경우 10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매일 대형음식점과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구조례에 따라 대형음식점의 경우 kg당 94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5원을 책정해 월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

## "차량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 환경분쟁조정위, 4가구에 400만원 배상 결정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거자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돼 배상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빌리에 거주하는 주민 135명은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한 차량소음을 인한 수면·청각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600만원과 향후 손해배상금 및 방음대책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교통소음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최고 66dB(A)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5dB(A)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 중 일부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개인성을 인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거주지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있고 도로

방향으로 배란다는 4가구 20여명이다.

/연합뉴스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잇

따라 배출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맞춰 수수료를 납부토록 해줄 것을 바

라고 있으나 자치구가 이에 따른 막

대한 예산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종

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차

량에 계측기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모든 차량에 설치할 경우 10억원 이

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매일 대형음식점과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구

조례에 따라 대형음식점의 경우 kg당

94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5원을

책정해 월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

거가 오전 이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다 무게를 재는 장비가 대부분 차량 내에 있어 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과다 책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양은 일정한데 월별로 나오는 수수료는 들죽날죽하다"며 "계측량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정측은 난감하다. 현재 차량 조수석에 있는 계측기를 외부로 빼내면 비용이 발생하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잇

따라 배출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맞춰 수수료를 납부토록 해줄 것을 바

라고 있으나 자치구가 이에 따른 막

대한 예산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종

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차

량에 계측기 등을 설치해야는데,

모든 차량에 설치할 경우 10억원 이

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매일 대형음식점과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구

조례에 따라 대형음식점의 경우 kg당

94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5원을

책정해 월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

## 사회

## 안찾아간 채권

## 광주지역 7억

광주지역에서 채권 상환시 기가 됐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이 7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자동차등록과 각종 계약, 인허가 때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청구권 소멸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다.

광주시는 손해를 보는 채권자가 없도록 홈페이지 등에 상환계획을 공고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상환은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둔이는 광주시 예산담당관실(062-613-2443)과 빛고을콜센터(062-120)로 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물 05시 47분 해진 19시 14분

달물 08시 59분 달진 23시 33분

서울 맑음 9/18°C

인천 맑음 9/15°C

대전 맑음 11/18°C

전주 맑음 8/19°C

광주 맑음 10/18°C

제주 맑음 9/19°C

충남 맑음 10/17°C

충북 맑음 9/17°C

경북 맑음 10/20°C

경상 맑음 8/16°C

전주 맑음 9/18°C

전북 맑음 8/17°C

군산 맑음 8/15°C

남원 맑음 6/17°C

흑산도 맑음 9/15°C

제주도 맑음 10:13°C

부산 맑음 16:51°C

울릉도 맑음 22:08°C

제주도 맑음 00:00°C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금) 28(토) 29(일) 30(월) 5/1(화) 2(수)

날씨 8/23 9/24 11/23 12/24 13/25 14/24



## 불법 고리사채 뿌리뽑는다

## 광주지검, 경찰·국세청 등과 합동수사부 설치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고리사채업 등 민생금융침해 범죄가 급증하자 광주지·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용 광주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지난 24일 현장에 펼쳐졌다.

합수부는 향후 금감원 신고센터(1332)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 행위는 물론 대출사기, 불법대출증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부는 광주지검 강력부·형사부 소속 검사 2명, 수사관 4명, 각 기관 파견직원 각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합수부장은 광주지검 박용호 형사부장이 맡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폭력노출 아이

## 빨리 늙는다"

## 미대학 연구원 분석

비해 빨리 짧아진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텔로미어란 구두끈 끝이 풀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면 끝 부분처럼 염색체의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으로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며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되어 죽게 된다. 인간, 동물, 식물 모두 염색체에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

미국 드크대학 게놈 과학·정책연구소 신경과학연구실의 이단 살레브(Idan Shalev) 연구원은 폭행, 집단 따돌림, 신체학대 피해아동은 시간적·생물학적 연령을 나타내는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빨리 짧아진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그리고 자신의 육방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염습니다.

이전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 경희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증-359호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기습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간경기장
- 신경증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출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빼밀리 렌터카

화정동 주택은행(주선회관)  
▲ 송정리